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예술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제2회 KAC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피 안 섞인 나의 이춘
수상내역	장려상
작가	우수연
공모분야	시나리오
시놉시스	<p>시월드를 싫어하는 우리나라 여자들! 시월드 중에 시어머니도 없고, 시누이도 없다. 그런데, 밥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먹고, 속옷은 자기가 빨지도 않고 뒤집어 놓는 도련님이 있다!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각박한 이 시대에 가족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서로 이해해주고, 그 이해를 통해 배려까지도 해주는 가족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p>

제목 : 피안 섞인 나의 이혼

주제 :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가족이다.

작의 : 시월드를 싫어하는 우리나라 여자들! 시월드 중에 시어머니도 없고, 시누이도 없다. 그런데, 밥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먹고, 속옷은 자기가 빨지도 않고 뒤집어 놓고 도련님이 있다!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각박한 이 시대에 가족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서로 이해해주고, 그 애해를 통해 배려까지도 해주는 가족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등장인물

임종현(35) 동현의 동생으로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남. 직업은 태권도선생님. 취미는 만화책읽기. 뭐든지 다 들어주는 엄마 밑에서 자라서 남에게 일시키는 게 습관이다.

설희주(39) 동현의 부인으로 직업은 주부이다. 취미는 아침 설거지 끝낸 후 우아하게 커피 마시기이다.

임동현(41) 종현의 형이자 희주의 남편이다. 대기업에 다니고 말이 적다.

임한유(5) 동현과 희주의 막내아들로, 종현과 대장놀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외, 임한호, 임한주, 아주머니, 류시연, 험상궂은 남자.

S#1 주방 (늦은 오전)

수북이 쌓여있는 설거지통 앞에서 빨간 고무장갑을 낀 희주는 라디오 속 노래를 흥얼거리며 신나게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를 끝내고 시간을 확인하는 희주.

희주                   오늘따라 설거지가 일찍 끝났네! 커피 한 잔 마시고, 빨래해야 겠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커피를 마시러 향하는 희주.

S#2 종현의 방 (늦은 오전)

잘 자던 종현의 얼굴근육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종현은 일어난다.

**종현** (고통스러워하며) 으...... 머리 아파. 물.....물.

종현은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향한다.  
 커피를 타던 희주는 종현과 마주친다.

**희주** (한심하다는 목소리로) 도련님, 오늘 따라 일찍 일어 나셨네요.  
**종현** (자다깼 목소리로) 형수님, 안녕히 주무 셧습니까? 저, 아침 좀 차려 주세요. 어제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더니, 머리가 너무 어지럽네요.

종현,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를 열어 본다.

**종현**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아이고 형수님, 찔알간 고깃국이 뭐예요. 안 그래도 쓰라린 속이 아주 짹짹 갈라져 더 쓰라려 질것 만 같네요. 형수님! 저 콩나물 북어 국 해주세요!  
**희주**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콩나물 북어 국이요? 그냥 콩나물국도 아니 고요? 저 오늘 바쁜데......  
**종현** (dif딕게, 선심을 베풀었다는 듯이) 어쩔 수 없네요. 그럼 그냥 콩나 물국이나 끓여 주세요.  
**희주** (화를 참으며) 네~도련님~

희주는 콩나물을 다듬고 콩나물국을 끓이고, 종현은 식탁의자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한다.

S#4 화장실 (오후)

빨래를 구분하여 세탁기에 넣고, 골라낸 속옷을 화장실에서 빨고 있는 희주.  
 다음 속옷 을 집어 빨려다가 종현의 팬티를 발견한다.

**희주** (한탄하며)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다 큰 남자 팬티나 빨아 주고. (오버하면서 종현의 말투를 따라 하며)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럼 그냥 콩나물국이나 끓여 주세요. 아이고 대단한 위인 나셨네, 나셨 어. 오늘은 꼭! 동현 씨를 설득 시키고 말겠어!

S#5안방 (저녁)

한유가 침대 위에서 그림동화책을 보고 있다.

희주는 회사에서 돌아온 동현의 옷을 받아 준다.

희주 (조심스럽게) 동현씨, 도련님 분가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 되요. 도련님도 이제 결혼 할 나이도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집에서 빈둥거리시면, 영원히 장가 못 갈 까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언제 까지 한호랑 한유, 같은 방 쓰게 할 수 도 없고. 이제 한호도 사춘기 일 텐데.

동현 나도 종현이 분가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 걱정 돼서, 좋은 짝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안방 침대 위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한유, 재빠르게 종현의 방으로 달려간다.

S#6 종현의 방 (저녁)

종현의 방문을 벌럭 열고 들어온 한유.

침대 위에서 만화책을 읽던 종현은 귀찮다는 눈빛으로 한유를 쬈어본다.

종현 꼬맹이조카! 왜?

한유 (신나는 목소리로)삼촌! 대장님! 긴급 속보! 긴급 속보!

종현 (목소리를 깔며) 무슨 일입니까? 임대원

한유 엄마가! 아빠한테 대장님을 봉가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님, 근데 봉가가 뭐야?

종현 (당황하며) 봉가.....? 부..분가? 한유야! 분가는 다음에 설명해 줄 테니까! 더 자세히 말해봐! 또 뭐라 하셨어?

한유 대장님! 내가 말 해 줄 테니까 저번에 사주기로한 장난감 꼭 사와!!

종현 (급한 목소리로) 그래, 그래! 말해봐!

한유 엄마가 대장님 봉가 시키자 고 했는데! 아빠가 대장님에게 좋은 짝궁 있으면 봉가 시킨데! 내 짝궁 좋은 앤데, 삼촌 소개시켜 줄까? 그럼 삼촌 봉가 할 수 있어!

종현 현유야, 삼촌은 분가하기 싫어! 그러니까 짝궁은 소개 시켜 주지 않아도 돼, 고마워, 임대원! 역시 우리 꼬맹이 밖에 없대니까. 한유야! 다음에 도 알려주면, 내가 한유 갖고 싶은 장난감 다~사줄게!

한유 네! 대장님!

S#7 거실 (저녁)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던 희주와 동현에게 다가가는 종현.

**종현** (걱정스러운 얼굴로 국어책 읽는 말투로) 어! 곧 있으면 한주 올 시간이네! 한주 학원에서 집까지 오려면 무섭겠다. 형! 형수님! 저 한주 데리고 올게요!

동현과 희주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종현은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흐뭇하게 종현이 나간 문을 바라보는, 동현

분한 얼굴로 종현이 나간 문을 바라보는, 희주

S#8 한주의 학원 앞 (밤)

한주를 기다리던 종현은 한주를 발견한다.

**종현** 어이! 한주공주님!

**희주** 대박, 삼촌 왜 그래?

**종현** 삼촌이 왜 그러기는 인마! 삼촌이 걱정되서 우리 예쁜 한주 마중 나왔지! 가자! 우리 한주! 우리 집으로 가자!

**희주** 우리 집? 삼촌 또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 했구나! 삼촌, 내가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삼촌 나이가 몇인데 웬만하면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나 가지?

**종현** 됐네요. 난 지금이 좋아! 얼른 집에나 가자!

S#9 거실 (아침)

희주,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희주** 아이고, 정말 괜찮은 남자라니까! 요즘 운동하는 남자가 얼마나 인기 많아? 태권도 선생님이야. 나이도 35이고! 키까지 크다니까?

**아주머니E** 정말? 나쁘지 않네? 그래도 직업이 태권도 선생님이라는 게 좀 그렇다. 남자가 번듯한 직장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될 듯싶은데.....

**희주** 요즘 태권도 선생님 월급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태권도 선생님이어서 오전에는 출근 안하고 집에 만 있어! 그러니까, 출근하는 부인 뒷바라지도 좀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남자지!

**아주머니 E** 정말, 그럴 것 같다! 안 그래도, 내 친구 딸 중에 아직 시집 안 간애 하나 있거든!

희주                   어머~ 잘됐다. 우리 도련님 좀 소개 시켜 주라~

머리에는 등지를 지은채로 한손으론 머리를 만지고, 한손으로는 배를 긁으며 잠에서 깨어 나오는 종현

그런 종현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가, 다시 피며 통화를 이어 나가는 희주

희주                   어, 그래 나중에 계속 얘기 하자.

종현은 물을 마시며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 들었는데,  
희주가 리모컨을 가로 챈다.

희주                   (상냥한 목소리로) 도련님~ 요즘 쓸쓸하시죠?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해도, 전화 할 사람도 없고?

종현NAR.           드디어 시작 됐군, 말려들 지 말자! 말려들면 안 돼!

종현                   네? 아니요~ 저는 지금처럼 자유로운 이 생활이 너~무~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에 내가 원할 때 일어나서, 밥 먹고, 빈둥거리다가 도장 다녀와서 친구들과 놀고, 정말 환상적인 생활인데요. 감히 어디 놀러 갈 생각도 안 들어요!

희주                   (한숨을 쉰 후)도련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도련님, 선보시지 않으실래요? 글썄, 참하고 예쁜 여자 하나가 있는데, 아직 도련님처럼 결혼을 안했데요~

종현NAR.           말려들지 말자.

종현                   (진지한 목소리로)진짜예요?

희주                   (놀라며)네?

종현                   진짜, 예뻐요?

종현NAR.           (절규하며)말려들었다.

희주                   (사악하게 웃으며) 네! 진짜 예뻐요! 제가 사진만 있으면 보여 드리는 건데. 아, 사진이 없네요. 도련님! 그러지 마시고, 선 한번 봐 보고 오세요! 얼마나 예쁜지 한번 직접 봐보세요!

종현                   (도도한 척 하며)흠.. 그럼 그 약속 잡히면 말이나 해주세요!

종현NAR.           (절규하며) 망했다.

희주NAR.           (기뻐하며) 성공!

종현은 방으로 들어가고, 희주는 다시 전화를 한다.

희주                   어, 그래 나야. 우리 도련님 소개 시켜 준대던 그 여자 예쁘지?

아주머니E           응? 어..... 그게 말이야. 사실 그 여자가 다 펜찮은데 스타일이

잠......

S#10 종현의 방 (오전)

침대 위에서 허공에 발차기를 하며 절규하고 있는, 종현

종현 (절규하며) 아악! 내가 왜 그랬지? 날 분가시키기 위해 이러는게  
 분 명한데! 예쁘다는 말 때문에! 아아악 망했어.  
 (차분한 목소리로)그래, 이왕 선 보기로 할 거 예쁜 여자라니까 구  
 경이나 하다 오지 뭐.

S#11 카페 (오전)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종현

카페를 둘러보는데, 두 쌍의 커플과 친구들끼리 놀러온 여자아이들 한 무리,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 여자 두 명이 보인다.

한 여자는 정말 패션센스도 짱이고, 머리카락도 뽁글뽁글 폭탄머리이다.

다른 한 여자는 정말 세련된 옷차림에, 긴 생머리.

종현은 이끌리는 듯이 세련된 여자에게 다가간다.

종현NAR.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귀에 입이 걸리듯이 웃는다.)김연희.....김연  
 회..... 예쁘다 그러셨으니까 저 여자가 김연희 일거야!

종현 (목소리를 깔며) 안녕하세요. 저 선보러 온 사람인데, 혹시..... 그  
 쪽이?

세련된 여자 아.....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옆 테이블에도 뽁글머리 여자 앞으로 험상궂은 남자가 다가온다.

종현과 세련된 여자에게 옆 테이블에서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려온다.

뽁글머리 여자는 의자에 앉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딱 봐도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다.

험상궂은 남자 (우렁찬 목소리로)선보러 오신 거 맞죠? 이름이 뭐예요?

뽁글머리 여자 저.....제.제 이름은..... 김. 김연희.. 예요..

험상궂은 남자 (이상하다는 듯이, 더 큰 목소리로) 김연희? 김연희? 아인데..... 내  
 가 보러온 여자는 김연희가 아니라, 류시연인데..... 이상하다.....

협상국은 남자의 우렁찬 말이 끝나자, 세련된 여자가 옆 테이블에 앉은 협상국은 남자에게 말을 한다.

세련된 여자 어? 내 이름이 류시연 이데..

종현NAR. 뭐야? 그럼 내 맞선 상대는 저 뽀글머리 여자? 안 돼! 안된다고! 가지마세요! 긴 생머리님!

협상국은 남자 뭐지?

연희 (떨면서)저.. 서로.. 맞선 상대가.. 어긋난 게 아닐까요.....? 제.. 제가 (종현을 가리키며) 저 분과 맞선보고..... (협상국은 남자를 가리키며)그 쪽이 (류시연을 가리키며)이 분과 맞선 보는 게 맞는 것...같은...데.....요..

시연 아~

협상국은 남자 아.....

종현NAR. 안 돼!.

협상국은 남자가 종현에게 다가오자, 종현은 자리를 비켜주고 연희에게 다가가 앉는다.

연희 (떨며 작은 목소리로) 아.....안녕.....하..세.....요...?

종현 (짜증내며) 네? 뭐라 고요?

연희 (더 떨며 조금 커진 목소리로) 아...안녕..하세요..!

종현 (무미건조한 말투로) 네, 안녕 하세요. 제 이름은 임종현이에요. 이야기 들으셨듯이 저는 태권도 관장 선생님이에요. 아, 그렇다고 그 도장 주인은 아니에요. 그냥 태권도 선생님일 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친형네 집에서 얹혀살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고 있죠.

연희 (작고 소심한 목소리로)제.....이름...은.....

종현 (연희의 말을 가로채며) 김연희, 김연희 인거 알아요. 목소리 좀 크게 낼 수는 없어요? 감기라도 걸리셨나?

연희 (작은 목소리로) 아...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낮을 좀 심하게 가리거든요..

종현 오늘은 너무 엉망이 된 것 같네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종현은 짐을 챙기고 카페를 나간다.



S#12 집(오전)

E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희주는 얼른 달려와 종현을 마지 한다.

희주           도련님! 맞선은 잘 보셨어요?  
 종현           (화난 듯이) 이 맞선 주선한 사람한테나 물어보세요. 잘 됐는지.  
 종현NAR.       그래, 잘 됐어. 차라리 잘 됐다. 계속 형네 집에서 살아야지.  
 희주NAR.       여기 계속 얹혀살려고 일부로 망치고 온 거 아니야?  
 희주           아무튼, 도련님, 저는 장 좀 보고 올 태니까, 집이나 잘 지키고 계세요.

종현, 알겠다는 듯이 체크처를 취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S#13 종현의 방 (오후)

한유가 만화책을 보고 있는 종현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한유           대장님!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종현           (눈은 만화책에 향한 채)장보러 갔어.  
 한유           (걱정스러운 듯이) 대장님! 그런데 밖에 비가 옵니다!  
 종현           (귀찮다는 듯이) 택시 타고 오시겠지.  
 한유           (울먹이며)대장님! 저는 엄마 보러 가고 싶습니다!  
 종현           (짜증내며) 아! 진짜 오늘 되는 일 없네. 가자 가!

한유에게 우비를 입히고, 장화를 신기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종현

S#14 마트 (오후)

희주NAR.       얼른 가서 저녁 해야 되는데, 비가 그칠 기세가 안보이네.. 택시 타기엔 좀 아까운데, 도련님한테 오라 그럴까?

그때 저 멀리서 노란 장화를 신고 뛰어오는 한유의 모습과, 귀찮다는 듯이 걸어오는 종현의 모습이 보인다.

한유           (엄마에게 달려와 안기며) 엄마! 내가 마중 나왔어요!  
 희주           (감동하며) 아이고 우리 한유 다 컸어! 도련님 오셨어요?  
 종현           (들고 있던 우산을 건네며)네, 오셨어요. 여기 우산이요.

회주            고마워요. 도련님이 도움이 될 때도 있네요.  
 종현            제가 도움이 안 될 때는 있어도, 거치적거렸을 때는 없으셨죠?  
 현유            (짜증내며) 나도 나도 같이 얘기할 거야! 우리 집가자 집!  
 회주            (온화한 미소로) 그래, 가자~ 집!

회주에게 장본 집을 받아 든 종현과 현유와 회주는 함께 집으로 가는 뒷모습이 보인다.

# S#15 안방 (저녁)

한유는 침대위에 누워있고,  
 동현과 회주가 안방 의자에 앉아있다.

동현            종현이 분가 문제 말이야.  
 회주            네.  
 동현            종현이가 우리 집에서 막둥이 여서계속 대리고 있었지만, 진짜 이제  
                   는 분가 시킬 때인 거 같아.  
 회주            맞아요!  
 동현            그래서 말인데, 아직은 종현이에게 집을 새로 얻을 여유가 없을 터  
                   이니,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집을 얻어주고, 내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회주            아..... 저희들도 집 하나를 얻어 줄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건 좀 무리 일것 같아요.  
 동현            그러면 어떡해, 애를 길가에 내 보낼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면서 까지 종현이를 내보내기 힘들다면 종현이를 그냥 계속  
                   대리고 있는 수밖에 없어. 그나저나 당신은 왜 이렇게 종현이를 보  
                   내려 하는 거야? 사춘기인 한호 때문이면, 종현이에게 한유랑 같은  
                   방 쓰라고 하면 되잖아.  
 회주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한우            나! 나! 삼촌이랑 같은 방 쓸래!  
 동현            나 좀 섭섭해. 막말로 당신이 시어머니를 모셔 봤어, 시아버지를 모  
                   셔봤어? 종현이는 나의 하나 밖에 없는 형제야. 그런데 당신이 자꾸  
                   종현이를 분가 시키려고 하면 나는 정말 섭섭해.  
 회주            .....

한유 회주와 동현의 눈치를 보다가 안방을 나간다.

S#16 종현의 방 (저녁)

종현의 방에 한유가 들어온다.

한유 (슬픈 목소리로)대장님. 지금 또 대장님의 봉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힘 찬 목소리로)그래, 임대원. 어떻게 말하고 있으시나?  
 한유 까먹었습니다.  
 종현 (비꼬듯이)아이고, 잘한다.  
 한유 (슬픈 목소리로) 대장님.....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종현은 한유를 데리고 거실로 나간다.

S#17 거실 (저녁)

방에서 나오던 종현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희주를 보고, 동현에게 다가간다.

종현 형! 형수님 어디 가시는 거야?  
 동현 바람 좀 쐬고 온다면서 나가던데. 아휴. 내가 너 분가 문제에 대해서 좀 말했더니 토라져서 나갔어.  
 종현 (땡강부리며)아~ 형 나 분가하기 싫어!  
 동현 (귀찮다는 듯이) 나도 모르겠다. 니 형수나 설득해라.

종현은 뭔가를 결심한 듯이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S#18 밖 (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희주를 본 종현은 다가간다.

희주 (놀란 듯이) 도련님! 왜 나왔어요?  
 종현 형수님! 가요.

희주를 끌고 가는 종현.

S#19 포장마차 (밤)

포장마차로 들어오는 희주와 종현

종현            여기! 소주 세 병, 그리고 홍합국이랑 골뱅이 무침 좀 주세요! 형수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쏘게요!

희주            됐어요. 도련님이 시킨 것도 충분히 많은데.

종현과 희주는 말없이 음식과 술을 주고받으며 먹다가 종현이 먼저 말을 꺼낸다.

종현            (술 취한 말투로, 섭섭하다는 듯이)형수님! 제가 왜 미우세요? 저번 선도 그렇고. 형수님 그러시는 거 아니십니까.

희주            (술 취한 말투로) 도련님! 도련님이야 말로 그러시면 안 되죠! 제발 도련님 속옷은 도련님이 빠시고, 도련님 운동화도 도련님이 빠세요! 그리고, 도련님 아침 드시고 싶으시면 제때에 일어나셔서 드세요! 설거지 다 끝냈는데, 슬슬 기어 나오셔서 밥 주세요! 가 뭐예요!

종현            (사과를 하려 고개를 숙이다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며)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앞으로 제가 제 속옷, 운동화 빨고, 아침은 제가 차려 먹겠습니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쫓아 내지 말아 주세요요!

희주            오~ 그거 좋다! 그거 깔끔하네, 그거! 도련님이 그거 다 하시면 제가 도련님 안 내쫓죠! 못 쫓아내죠! 그 대신 도련님 그거 다 어기시면, 저 그 즉시! 도련님 내 쫓을 거예요!

종현            당연하죠! 내 쫓으세요! 에이, 그것도 못하면 못된 애다! 내가 못된 애였다! 형수님! 기분이다! 더 시키세요! 제가 오늘 쏘게요! 쏘니다!

F.O 종현은 술에 취한 듯 휘청거리며 계산을 한 후 희주와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간다.

S#20 집 (낮)

F.I E전화 벨 소리에 잠에서 깬 희주는 머리를 감싸 안고 일어난다.

희주            아...... 머리야...... 아침부터 무슨 전화야......

희주, 전화를 받는다.

희주            여보세요?

동현E            일어났어? 내가 대충 애들 밥 차려 놓고 깨우고 회사 왔어. 어제 내가 종현이 분가 일로 다그쳐서 많이 속상 했지? 미안해. 그래도, 당

신이 종현이랑 잘 해결하고 들어와서 나도 기분이 좋네.

희주

네...네?

동현E

기억 안나? 종현이가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하면 분가 안 시키기로 했잖아!

D.E 희주의 머릿속으로 어제 밤에 종현과 했던 말들이 지나간다.

희주

아.. 맞아요. 기억났어요.

동현E

그래, 어제 많이 마셨나봐? 오늘은 집안일 대충 하면서 폭 쉬어.

전화를 마친 희주는 거실로 나간다.

S#21 주방

콩나물국을 끓이던 종현과 마주친 희주.

종현

(활기찬 목소리로)아이고! 우리 형수님 일어 나셨네요! 저는 형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아침을 차리고 있습니다! 형수님 제가 끓이는 콩나물국 같이 드실래요?

희주

(웃으며)좋아요. 안 그래도 속이 쓰렸는데. 왜 콩나물 국이 땡기는지 알겠네요.

종현과 희주는 함께 늦은 아침을 먹는다.

종현NAR.

가족이라는 퍼즐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한 조각 씩 맞춰가면서 완성해내는 사랑이라고 생각 된다.